토미 에드먼, WBC 한국 대표팀 합류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미국인 토미 현수 에드먼(27·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오는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을 대표해 뛴다.

▲ WBC 한국 대표팀으로 선발된 토미 현수 에드먼. 사진=sportskeeda.com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강철 감독과 조범현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팀 최종 30인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에드먼도 포함됐다. 한국 출신 미국 이민자 곽경아 씨를 어머니로 둔 에드먼은 지난 2019년 MLB에 데뷔한 이후 4시즌에서 통산 459경기에 출전해 0.269의 타율과 40홈런 175타점 79도루 등을 기록했다.

에드먼의 장점은 MLB에서도 정상급으로 꼽히는 수비력이다. 2021년 내셔널리그 2루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유격수로 80경기, 2루수로 89경기, 3루수로 8경기, 외야수로도 3경기를 뛰는 등 만능 수비수로 활약했다. 주포지션은 2루수인 에드먼은 같은 메이저리거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함께 황금 키스톤 콤비를 이룰 전망이다.

에드먼의 승선이 더욱 화제가 되는 것은 한국야구의 순혈주의를 깼다는 점이다. WBC는 현재 국적과 관계없이 부모나 조부모의 혈통, 출생지에 따라 선수가 출전국을 택할 수 있다.

한편 애드먼, 김하성과 더불어 MLB에서 뛰고 있는 최지만(32·피츠버그 파이리츠)도 이번에 발표한 WBC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MLB닷컴 "김하성 '2루수' 골드글러브 수상할 것"

빅리거 김하성(27·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올 시즌에 2루수로 활약하며 '황금 장갑'을 거머쥘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 올 시즌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것으로 평가받는 김하성. 사진=sandiegouniontribune.com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MLB닷컴은 전날 '2023년 샌디에이고 전망 23가지' 제하 기사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 매체는 "이미 김하성은 (2022 시즌에) 자신이 엘리트 수비력을 갖춘 유격수임을 증명했다."며 "2루수 자리에서도 단단한 수비를 뽐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글러브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들에게 주는 상으로, 김하성은 지난해 내셔널리그(NL) 유격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결국 고배를 마셨다. 올해부터는 '특급 유격수' 잰더르 보하르츠(30)에게 유격수 자리를 내주고 2루수로 이동할 전망이다. 샌디에이고는 2022시즌을 마친 뒤 공수를 겸비한 보하르츠를 11년 총액 2억8천만 달러에 영입했다.

MLB닷컴은 또 샌디에이고가 높은 승률로 NL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해 NL 디비전시리즈에 직행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앞서 스포츠전문채널인 ESPN도 샌디에이고의 예상 승수를 99.9승으로 점치면서 포스트시즌 진출 확률(96%)이 MLB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MLB닷컴은 외야수 후안 소토의 NL 최우수선수(MVP) 후보 지명, 선발투수 블레이크 스넬의 2점대 평균자책점 기록 등도 관측했다.

김민재, 3개월 만에 몸값 2배 상승

▲ 이번 시즌 전세계 수비수 중 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선수에 오른 김민재. 사진=연합뉴스

카타르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김민재가 이번 시즌 개막 후 가장 많이 몸값이 오른 선수 7위에 올랐다. 수비수 중에서는 전 세계 1위다.

4일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스포츠 일간지 '마르카'는 이틀 전 축구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플랫폼 '풋볼 벤치마크'의 자료를 인용해 이번 시즌 동안 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선수 10명을 공개했다.

지난해 여름 나폴리 이적 후 핵심 수비수로 활약 중인 김민재는 9월 2,270만 유로(약 2,864만 달러)에서 약 2배 오른 4,470만 유로(약 4,740만 달러)를 기록, 이 부문 7위에 올랐다. 수비수 중에서는 전 세계 1위다.

상위 10명 중에서도 유일한 수비수로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격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였다.

마르카는 "김민재는 수비수 중 가장 많이 몸값이 상승한 선수"라며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이 한국 선수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몸값을 2,200만 유로나 끌어올렸다."고 조명했다.

한편, 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선수 1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파블로 가비로 3,638만 유로(약 3,859만 달러) 오른 1억 860만유로(약 1억 1,520만 달러)였다.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어깨 굳거나 빠근한 통증/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Frozen Shoulder)/오십견/견비통
등 척추측만증(Scoliosis) 특수교정(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퇴행성 관절염/요통/산후 허리통증
팔 팔꿈치 통증/Tennis Elbow/손목/Carpal Tunnel Syndrome/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다리 좌골 신경통(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무릎통증/발목통증/펜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Yoon Chiropractic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Lampson Ave / Brookhurst St / Yoon Chiropractic / Euclid / Garden Grove St / 22 Fwy